



햇갈리는 말을 바르게 써 봅시다

\_\_\_\_\_학년 \_\_\_\_\_반

이름 \_\_\_\_\_

1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.





- (1) 정후와 윤서는 각각 무엇을 보고 있나요?
- (2) 마지막 장면에서 윤서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나요?
- (3) 윤서처럼 어떤 낱말이 옳은지 고민한 적이 있나요?

## 2 헛갈리는 말 중에서 맞는 말을 어떻게 확인할까요? 알맞은 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.



## 3 자신이 평소 헛갈리던 낱말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.

이름	헛갈리는 낱말	
홍길동	적다	작다



#### 4 다음 문장에 맞는 낱말을 찾아 ○표 해 봅시다.

물병에 물이 ( 적게 / 작게 ) 담겨 있다.

친구와 내 생각이 서로 ( 틀리다 / 다르다 ).

아버지께서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을 ( 가르쳐 / 가리켜 ) 주셨다.

생선찜에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약한 불에 ( 조리다 / 졸이다 ).

#### 5 다음 낱말의 뜻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써 봅시다.

낱말	내가 만든 문장
틀리다	
다르다	
작다	
적다	
가리키다	
가르치다	
졸이다	
조리다	



6 ( )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찾아 쓰고, 낱말에 색칠해 봅시다.

- ◆ 내가 그린 그림과 친구가 그린 그림은 ( ).
- ◆ 영수의 키는 진희의 키보다 ( ).
- ◆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을까 봐 마음을 ( ).
- ◆ 나는 주말에 동생에게 공부를 ( ).
- ◆ 고기에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오래 ( ).

다르다

틀리다

조리다

가르키다  
(가르켰다)

가르치다  
(가르쳤다)

가리키다  
(가리켰다)

줄이다

적다

작다